

폭우와 무더위에 보다 치밀한 사양관리 뒤따라야



최영열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최근 우리 양돈산업은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냄새 규제에 의한 사육의욕 상실 등 내부적인 요소들과 함께 WTO, DDA 그리고 최근 한·미 FTA 협상 추진 등 농업 개방 확대에 의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들이 지난 14일부터 17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폭우와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 여러분의 보다 치밀한 사양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최근 CJ푸드시스템의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보여지듯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양돈농가들은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는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을 아무런 의심 없이 육류로 몰고 가려고 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건은 우리 양돈협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돼지고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 비켜갈 수 있었으나 이의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원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돈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돼지고기 생산만이 우리의 미래

여기서 우리 농가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돼지고기 생산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챙이 한 마리가 연못을 다 흐려놓는 것처럼 일부 농가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양돈산업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를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난 6월 천안에서 전국 400여명의 양돈지도자들이 모여 양돈환경규범을 채택하고 깨끗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양돈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양돈인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결사 저지할 것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4만명 가량의 농축산인이 운집한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인 제2차 결의대회'와 7만 명이 모인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우리 양돈협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단체협의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등 우리나라 농업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몸을 던져 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농업을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이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양돈농가 여러분!

향후 국내 양돈산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실로 불투명한 비상시국에 우리 양돈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 농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사람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돼지고기 생산과 친환경 양돈산업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양돈산업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손 잡고 나아갑시다. 양돈농가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돈**